

'2019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 MBC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19.5.28	대전MBC 대회의실	7	7	

-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 김병구 위원, 권부남 위원, 양홍모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신원식 사장, 이재근 경영기술국장, 박선자 편성국장, 신영환 보도국장, 서주석 미디어전략국장, 정수진 방송기술센터장, 임세혁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2	6	5	-	-	11	-	13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2	1	-	13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7 건	9 건	
교양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다 : 다양한 소재 선택이 있었으면	행복한 동행 노노케어 (5/1), 청소년 의회 (5/15)의 다양한 계층을 소재로 소개 <19.5월 조치>	'19.4월
교양	크리에이터 성장기 독전 : 먹방보다 신선한 인물 선정해야	네덜란드 유학생 유튜버 (5/7)의 한 국문화 소개 <19.5월 조치>	'19.4월
보도	노정렬의 시시각각 : 사전협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	52시간 근무제, 실태와 과제 (5/19) 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19.5월 조치>	'19.4월
보도	노동문제에 다양한 시각 필요	산재 이제 그만, 100인 토론회 (5/27) 다양한 여론 수렴 <19.5월 조 치>	'19.4월
보도	대전 야구장에 대한 심층보도	베이스볼 드림파크 자문위원 (5/28), 동형 ? 개방형 ? (6/10) <19.5-6월 조치>	'19.4월
보도	신중한 교육투자에 대한 보도 요청	친환경 무상급식 첫해 성적표는 ? (5/30) <19.5월 조치>	'19.4월
보도	제보뉴스 활성화	당신이 뉴스입니다 - 축사 갈등 (5/24) <19.5월 조치>	'19.4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성명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정보 공개 사항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대전 MBC 홈페이지	시청자위원회 월간 운영실적 회의록 전문공개	인터넷

나. 시청자위원 명단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	권부남	대전 청소년 위캔 센터장	대전YWCA	청소년단체	19.05.01 ~ 20.04.30
위원	김종남	대전YMCA 사무총장	대전YMCA	소비자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학부모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양선희	대전대학교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관련단체	19.05.01 ~ 20.04.30
변 동 사 항 (신임 시청자 위원)					
위원장	김선재	배재대학교 총장	한국컨텐츠학회	문화단체	19.05.01 ~ 20.04.30
위원	김병구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9.05.01 ~ 20.04.30
위원	박상민	정보철강(주) 부사장	미래경영인모임	경제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서한나	잡지 Boshu 편집장	청년 고리	문화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이규홍	안정성평가연구원 본부장	한국독성학회	과학기술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임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대전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	19.05.01 ~ 20.04.30

※ 신임 시청자위원 관련 사항은 별도 파일로 보고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편성	<p>1. 편성 : 주말 드라마 시간대 변경후 지역 방송의 편성 변화</p> <p>MBC 주말 드라마 방영시간이 40년 만에 바뀐다고 들었다. 이러한 변화가 지역방송사에는 어떻게 적용 되는 지 등에 대해 궁금하다. (임정규 위원)</p>	<p>평일 밤 10시대의 미니시리즈(월~목)가 밤9시대로 이동하여. 그 시간대를 사용하던 <크리에이터 성장기, 독전>(화)과 <다큐에세이 그 사람>(수)가 10시대로 편성이 변경되었습니다. 2~4주가 지난 지금까지 로컬 프로그램에 큰 변화는 없으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전체 MBC그룹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p>	○		
편성	<p>2. 편성 : 유튜브 라이브</p> <p>광주MBC 같은 경우 5.18 기념일에 39시간 연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였더라. 이를 통해서 구독자들이 증가하고 채널에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동시접속자수도 500명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대전MBC도 이러한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선희 위원)</p>	<p>최근 지역사의 유튜브 라이브 성공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MBC 경남의 경우 보궐선거 개표방송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동시접속자 2만명을 기록하기도 하였고,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역사의 이러한 사례가 노하우와 함께 공유되고 있어 지역사마다 다양한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고 있습니다.</p> <p>대전MBC 유튜브 뉴스 채널은 모든 뉴스를 실시간 스트리밍(라이브)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특보 등도 상황에 따라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3. 교양 : 젠더이슈에 대한 대처</p> <p>지역방송에서 젠더이슈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젠더라는 이슈가 과학이나 의학, 패션 등에서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기획하는 논의가 요구된다. (임정규 위원)</p> <p>노정렬 시시각각 : 전문가 등 패널선정 시 성비 균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 남자 아나운서와 여자 아나운서 구도가 기존의 성별 고정관념 부분, 남성이 질문하고 여성은 답변하는 것. 진행순서가 남자에서 여자로 가는 형식 등이 바뀌면 좋겠다. 나아가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서한나 위원)</p>	<p>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남녀 성비를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방송 아침에서 지적한 내용의 경우 남자 진행자가 더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왔기에 자연스럽게 굳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원고 작성이나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의견을 참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p>노정렬의 시시각각은 한 주 동안 가장 시의성있는 소재 혹은 주요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패널 선정 시 해당 이슈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섭외하고 있으며 이슈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비 균형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p>	○		
교양	<p>4. 교양 : 방송 소재 제안</p> <p>저는 어떤 콘텐츠든지 재미가 있고 관심이 가게끔 역발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시청자들이 본다고 생각한다. 저는 ‘재미’와 ‘역발상’ 2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방송도 지금까지의 관습적이고 통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역발상을 발휘하면 좋을 것 같다. 부산의 경우는 사투리로 방송한다고 한다. 그렇게 인기가 좋다는 데, 대전도 충청도 사투리로 방송을 진행한다면 임팩트가 있어서 지역민들이 많이 볼 것 같다. 요즘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역발상이 아니라면 쳐다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김선재 위원장)</p>	<p>타당한 지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전의 특성이 외주에서 이주해 온 이들이 많고 저희 제작진 역시 타 지역 출신의 비중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 자체는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되며, 향후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5. 교양 :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다</p> <p>프로그램 시각이 신선했다. 무엇보다 매 프로그램마다 소개하는 소개자가 달라져 시선이 달라지다보니 새로웠다. 그런데 프로그램 호흡이 길지 않아서 무언가 재밌어지려고 하면 끝나는 느낌이 들어 아쉬웠다. (이규홍 위원)</p> <p>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내용을 다뤄주어서 좋았다. 방송시간도 이 프로그램만의 차별성이라 생각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방송에서 청소년 의회 부분을 소개하면서 어른들의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다. 여기서 “어린애들은 뭘 알아.”, “청소년들은 아직 판단을 못 해.” 등의 내용을 자막으로 보여줬다면 각자 내용을 읽고 해석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 고압적이고 부정적인 음성 지원을 넣다보니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느낌을 받았다. (양선희 위원)</p>	<p>지적하신 부분은 제작진 역시 고민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오디오를 넣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지적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에 더욱 세밀한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		
교양	<p>6. 교양 : 크리에이터 성장기 - 독전</p> <p>외부에 나가서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거나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다. 앞으로의 방송 중에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크리에이터도 발굴해서 보여주면 좋겠다. (김중남 위원)</p> <p>크리에이터 새싹을 정하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유튜브를 지상파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유튜브를 어떤 식의 재료로 삼아야할 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그 속에서 지상파의 존재의미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 (서한나 위원)</p> <p>충남보령으로 놀러간 외국 크리에이터 방송분은 이야기와 더불어 충남 보령을 홍보해주는 것도 좋았다. 프로그램을 보며 스카이라이프가 있는지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되었고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가능하다면 2019년 대전방문의 해와 관</p>	<p>독전의 경우 시즌제를 도입한 첫 프로그램입니다. 시즌제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재정비’의 시즌에 주목했으며, 시즌 1의 종료와 시즌 2의 시작 사이의 공간에서 더 많은 고민들과 정교한 다듬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적한 부분들까지 모두 모아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련해 이 프로그램과 연계해 대전의 고유한 축제라든가 명소 등을 여행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담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 (박상민 위원)</p> <p>참돔 부부 출연분의 경우 편집되었다가 나중에 방송이 되었는데, 그 자체도 흥미 있는 에피소드여서 그 장면이 처음부터 등장해서 방송되었다면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지 않았을 까란 생각을 했다.</p> <p>독전의 과연 장르가 무엇일까 고민했다. 탈장르는 이미 예전부터 예능이 정보와 교육 등을 다루긴 했었다. 독전에는 정보도 있고 예능도 있고 다양해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모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상파방송이 할 수 있는 특색은 무엇일까 고민이 필요하다. (양선희 위원)</p>				
교양	<p>7. 교양 : 다큐에세이 그 사람</p> <p>흥미로운 인물을 선정하였고 카메라 움직임이 아날로그적이고 여유로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출연자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완성도 있는 구성도 좋았다. 다만, 출연자들의 발음이 부정확해서 가능하다면 자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서한나 위원)</p>	<p>출연자의 멘트에 자막을 넣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은 늘 있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를 도울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몰입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자막 제공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p>	○		
보도	<p>8. 보도 : 노정렬의 시사각각</p> <p>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하는 부분을 보았는데, 전통적인 인터뷰 프로그램으로 느껴져, 더불어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담 부분에서는 크게 재미가 있을 구성 요소를 진행자 노정렬씨가 잘 소화했음. (이규홍 위원)</p> <p>시사프로그램은 방송사마다 하지만 실제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를 시청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가 고민이다. 최근의 방송사들을 보면 지역의 환경은 지방자치체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부분이 많이 있어 심층적인</p>	<p>한 주간에 가장 주목도 있는 소재를 다루려고 하지만 패널 선정 등이 쉽지 않아 제작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인터뷰의 경우 현장 녹음을 진행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녹화를 마쳐야 해서 현장음 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욱 세심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주제에 대한 다양성은 늘 견지해</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정보가 충분하게 지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을 방송도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임정규 위원)</p> <p>노무현 서거 10주년 관련해서 진행자가 유시민 이사장을 인터뷰는 새롭고 재밌었다. 다만, 음악소리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려, 오디오 부분이 거슬리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주제는 ‘행정수도 완성 유시민에게 듣다.’였지만 질문의 내용이 너무 노무현과 유시민의 관계에 대한 것이 많았다. 재밌고 말랑말랑하게 전달해준다는 프로그램 특징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아쉬웠다. (양선희 위원)</p>	<p>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p>보도</p>	<p>9. 보도 : 기사 <추락하는 교권, 교사들의 고충></p> <p>“지금이 스승의 날 시즌인가?”하는 의문이 들었다. 왜 지금 시기적으로 이 주제를 잡아서 보도할까란 생각을 했다. 시기적으로 조금 더 앞서서 심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김종남 위원)</p>	<p>스승의 날인 5월 15일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꽃 선물이 힘든 현실을 조명한 "카네이션, 선생님 대신 제가 달게요"를 보도한 바 있으며, 교권 추락은 스승의 날을 떠나 교육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여서 리포트로 제작했습니다.</p>	○		
<p>보도</p>	<p>10. 보도 : 기사 <자전거 보험></p> <p>대전시가 올해 자전거보험에 들었다는 그 사실만을 보도 했다. 이것의 효용성이 과연 있을까란 생각을 했다. 전체보험비가 얼마고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 지, 그 동안의 성과가 얼마인지 심층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한다. (김종남 위원)</p>	<p>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및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p>	○		
<p>보도</p>	<p>11. 보도 : 코너 <바로 간다></p> <p>기획도 좋았고 세종미세먼지 최고 수준 등 체보에 대한 원인과 사실을 보도하였고 대책이 뚜렷하게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 정보</p>	<p>해당 뉴스는 미세먼지 측정값을 분석해 세종특별자치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것입니다. 기사는 세</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원을 다양하게 한 것은 좋았지만, 공무원 인터뷰는 원인에 대한 비슷한 내용의 반복이었다. (양선희 위원)	중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과다와 분지 등 지형적 요인에서 찾으면서 시 환경정책과의 인터뷰-"외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세종시에 지형적인 여건 아니면 기상 여건에 따라서 퍼지지 않고 정체돼 있을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납니다."-를 통해 시의 분석 상황을 확인한 것입니다.			
보도	<p>12. 보도 : 기사 <황교안 대표, 충청권 결집에 나섰다></p> <p>기자간담회에서 중앙집권 등 관련 발언들이 지역민심에서 동 떨어졌다는 내용. 그런데 문제는 보도를 할 때 기자의 리포팅으로만 이뤄졌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없었는데, 대체 황교안 대표가 관련 내용들을 어떤 어조로 어떻게 이야기 했는지 이 부분을 해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양선희 위원)</p>	<p>해당 기사는 5월 17일 <5일간 충청권 머문 황교안... 무엇을 남겼나?> 제목으로 제작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앵커▶</p> <p>전국을 돌며 이른바 '민주투쟁 대장정'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17)도 세종과 대전을 잇달아 방문했습니다.</p> <p>황 대표는 장외 투쟁 일정 11일 가운데 절반 가량을 충청권에 머물면서 충청권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였지만, 정작 지역민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p> <p>조명아 기자입니다.</p> <p><중략></p> <p>황 대표는 자칭 민주 투쟁 대장정 일정 11일 가운데 절반가량인 5일을 충청권에 머무르며 정치권과 교육, 과학계와 접촉했습니다.</p> <p>집회에 앞서 세종에서는</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학부모들을 만나 일 가정 양립과 저출산, 교육 정책 등에 대해 지지자들과 1시간가량 간담회도 가졌습니다.</p> <p>◀ I N T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육아의 어려움, 엄마의 어려움, 대부분 일·가정 양립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또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 이런 얘기를 듣고.."</p> <p>최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비교적 높게 나온 충청권의 지지층을 결집해 수도권까지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p> <p>◀ I N T ▶ 권선표/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항상 우리 충청권이 보수색이 높은 지역입니다. 대구·경북 지역 다음으로 높거든요. 따라서 우리 충청권에서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유권자들을 다시 한번 결집시키는.."</p> <p><중략> 오히려, 황 대표는 기자간담회 등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앙 집권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지역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p> <p>위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포트가 지적인 문체는 '지역 현안에 대해 황 대표의 의견을 거의 들을 수 없다'는 것으로 지적인 어조와 내용을 일일이 소개하는 것보다는 보다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기 위한 뉴스 제작입니다.</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13. 보도 : 소재 제안 및 제작 방향성</p> <p>대전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 중 90% 이상이 베트남 유학생. 그런데 여기서 50% 이상이 잠적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불법체류자가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전MBC가 유학생들의 실상을 한번 파헤쳐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선재 위원장)</p> <p>미세먼지 주제에 대한 의견. 대전지역은 카이스트, 충남대, 배재대도 있지만 대학들뿐만 아니라, 연구소들이 대부분 대전에 있다. 대전지역 출연연구소들 연구소의 특성에 따라서 미세먼지 해결책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어. 미세먼지 부분을 취재하고 기획하면 좋겠다. (이규홍 위원)</p> <p>기사의 편중도가 워낙 큰 사건 사고가 많기도 하지만 너무 딱딱하고 경직된 뉴스들만 보도되고 있다. 대전MBC의 기사들을 보다 보면 사건사고 위주의 기사다보니 다른 이슈들도 많을 텐데, 어려움이나 한계들이 있겠지만 오늘의 뉴스 타이틀만 보다보니 청소년, 아이들, 여성, 시장상인, 다른 지역의 이슈들도 있을 텐데 경향이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 보도에 있어 다양성의 반영이 필요할 것 같다. (임정규 위원)</p>	<p>유학생을 비롯한 지역 내 외국인의 인권과 노동 문제 등을 밀도 있게 분석하는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미세먼지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 활동도 관심을 갖고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사회적 과급력이 큰 사건사고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MBC 뉴스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젠더와 사회적 약자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p>	○			